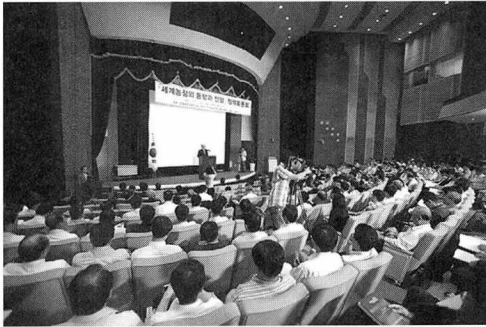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전경

지난 7월 23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 아래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기술·자본 집약형 경영체 육성, 건강·복지·환경·생태가 복합된 통합관점의 식문화 연계정책, 농가부채 정책과 민관 공동참여의 농정이 강조된 이날의 토론회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의 축사

토론회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하여, 황민영 농특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장,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 등 450여 명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인단체, 정부,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당부했다.

“규모화 농업정책” 해답 아니다

첫 발제자인 최세균 박사는 ‘세계 농정의 흐름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주의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농촌은 삶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의 주요 농정현황을 설명하며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환경 및 식품안전, 농촌지역개발 등에 대한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농정을 전환시켜 나가되 우리 농업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세균 박사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선진농업국에 비해 차이가 있고, 대농·소농간 양극화와 노령화가 심화되어 규모화 위주의 농업구조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기술·자본집약형 경영체를 육성해 차별화 된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 추구”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농림부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지정토론자인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은 “지난 35년간 영농 규모화를 추진했지만, 농가당 0.92ha에서 1.43ha로 불과 0.5ha 증가했을 뿐 “이라며” 규모화가 우리에게 맞는 정책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변화 수용, 현실 반영된 정책개발

이어 송미령 박사는 ‘선진국의 농촌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미령 박사는 “농업정책에 비해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농업·농촌·환경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식품 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정 대상에 식품안전, 식품영양을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농림부가 ‘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자리에서는 김병률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이 미국 농정에 대해, 김종철 농림부 정주지원과장이 EU의 농정에 대해, 김홍우 식물검역연구소장이 일본 농정에 대해,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우리나라 농정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현목 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영농 규모화는 대안이 아니다”며, “뉴질랜드나 유럽의 협동조합과 같은 초유기체적인 협동 경영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박현출 농림부 국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오내원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윤원근 협성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홍준근 농단협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규모화 위주 정책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탁명구 사무총장은 토론 주제와 별도로 “농민단체들도 농업·농촌·농정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들의 혁신을 촉구한다.”면서 농정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결속, 기관들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정부, 학계, 농민단체, 연구원 등 농업관련 기관·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농정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으며,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하나같이 농정에 대한 결속과 대화를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가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에 이어 각각의 지정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